

조선대 검도 '무적'...전국대회 단체·개인전 제패

회장기 대학선수권 단체전
11년 만에 정상에 올라
완벽 경기 양상훈 최강자 우뚝
올 시즌 최고의 전성기 구가

조선대학교 검도부가 올시즌 전성기를 구구하고 있다. 11년만에 회장기 전국대회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개인전 우승자를 배출했다. 조선대학교 검도부 양상훈(4년)은 최근 충남청양군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회장기 전국 대학검도선수권대회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양상훈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1점만을 내주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대학부 최강자로 우뚝 섰다. 양상훈은 예선 16강전에서 김찬솔(웅인대)을 상대로 머리치기로만 2점을 따내 2-0으로 승부를 결정지는데 이어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진출했다.

이어 결승전에서 조민우(제주대)를 머리치기로 제압, 1-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올초 SBS배 전국 검도왕 대회에서 3위에 오른 데 이어 검도 입문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 정상을 차지했다. 양상훈의 아버지는 양진석씨로 전 검도 국가대표다. 조선대 검도부 오길현 감독은 "체격조건이 뛰어난 양상훈은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선수"라며 "타고난 성실함으로 꾸준히 운동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단체전 우승도 일궈냈다.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3-2로 승리하는 등 박빙 승부를 펼친 조선대는 결승에서도 목포대를 3-2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지난 17일 막내린 8:15 광복절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제50회 전국학생검도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당시 대구대에 1-3으로 패해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검도부. 노민겸(1년·앞줄 왼쪽부터)·이경민(4년)·정영훈(3년)·양욱(4년)·양상훈(4년)·양동관(3년)·최진성(1년)·김기원(2년)·김강호(3년). 조선대 양상훈과 오길현 감독. <광주시검도회 제공>



개인전에서 우승한 양상훈(왼쪽)과 오길현 감독.

전남 체육인 3명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장영인 순천대 교수·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프로배구 염혜선

전남 체육인들이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받았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최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25회 전라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장영인 순천대 명예교수, 신정식 전남도축구협회장, 염혜선 KGC인삼공사 프로배구단 선수 등 3명이 '2021년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장영인 교수



염혜선



신정식 회장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은 국내·외 분야에서 전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도민과 출향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장영인 순천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체육회회를 창립하고 순천대 체육부(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양궁)를 창단하는 등 대학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통합 초대 전남축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남축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축구발전기금을 조성해 유·청소년 선수를 양성했다. 각종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선도했다. 목포 출신 염혜선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여자배구 4강 신화를 이뤘던 주역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코비치 호주오픈서 21승 쏠까

"백신 미접종자 출전 가능"

내년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선수도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사진)가 호주오픈에서 사상 최대 21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을 쓸 가능성이 생겼다.

26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여자프로테니스(WTA) 사무국은 최근 선수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수가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선수도 호주 입국 뒤 14일간 숙소에서 격리 기간을 거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국 뒤 72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한 선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다름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WTA는 서한에서 "백신 접종자는 '버블(통제된 경기장과 숙소)' 안에 머물 필요가 없으며, 지속적인 제한 없이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누린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에게서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오픈에 출전하려는 테니스 선수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호주오픈에 대한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호주 정부와 테니스계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호주오픈을 주최하는 호주테니스협회(TA)도 성명을 내고 "내년 대회는 최대한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참가 규정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WTA가 밝힌 대로 대회 방역 지침이 확정된다면 남자프로테니스(ATP) 선수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조코비치(세르비아)도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조코비치는 지금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비치는 현재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 로저 페더러(15위·스위스)와

함께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에서 20회 동률을 이루고 있다. 호주오픈에서 우승하면 사상 최초로 21번째 우승 기록을 달성한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최근 3연패를 포함해 9차례 우승하며 유독 이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영국 BBC에 따르면 ATP투어 선수의 최소 35%가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암도 못 꺾은 불굴의 의지...말기암 모리스 PGA 출전

"티샷 할 수 있다는게 축복"

29일(한국시간) 버뮤다 사우스포인트의 포트 로열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터필드 버뮤다 챔피언십에는 특별한 선수가 출전한다.

주최 측 초청으로 출전하는 브라이언 모리스(53·미국·사진)는 말기 암 환자다.

버뮤다 해변서 오션뷰 골프 코스에서 헤드 프로로 일해온 그는 2019년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암과 싸웠다.

두개골을 열어 종양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은 그는 나중에 위장과 식도에도 암세포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암과 식도암은 이미 4기까지 발전했다. 최근에는 목에도 암이 번졌다.

그는 "2년 전에 이미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며 주변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내 삶은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석 달에 한 번씩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견뎌야 한다.

암과 싸우느라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신경이 훼손되어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코스를 걷는 일도 힘들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현기증도 심하다.

최근에는 항암제도 잘 듣지 않아 임상실험 중인 신약을 투약받는다. 신약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전신에 번진 암세포도 모리스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모리스는 이 대회에 앞서 지난달 US 시니어 오픈 예선에 출전했고, 뉴잉글랜드 지역 프로 대회에서 출전해 공동 12위를 차지했다.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감사하다. 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인생을 계획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암 진단을 받은 뒤부터 코스에서 티샷을 날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여긴다. 의료진도 내게 골프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고 30분 동안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18홀을 다 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회 주최 측이 이 대회에 출전하라고 초청장을 보내왔을 때 "너무 행복했다"는 모리스는 "긍정적 태도와 긍정적인 전망이 어떤 기적의 약보다 낫다고 나는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그는 덧붙혔다.

PGA 투어 경기위원회는 모리스에게는 카트를 타고 경기할 수 있게 허용했다. 모리스의 사연을 소개한 PGA투어닷컴은 "모리스는 모든 사람에게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말기암 투병 속 PGA에 출전하는 브라이언 모리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
| 2관 |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
| 3관 | 툰 |
| 4관 | 애프타: 관계의 함정, 아네트 |
| 5관 |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
| 6관 | 툰, 보이시 |
| 9관 | 바다 탐험대 육토넷: 육지수호 대작전 고장난 룬 |
| 7관 씨네커틀 | 툰, 그림자꽃 국경만 향주는 꽃말라: 격렬! 뇌사영국과 알츠하이머의 용사들 |
| 8관 씨네커틀 |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보이시 용과 주근깨 공주, 동백 |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2021.10.27(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 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